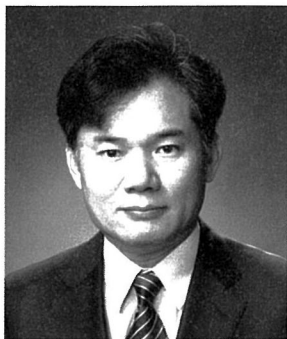


대학의 성장은 도서관과 함께 한다



글 | 광 철 완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ckwak@kangnam.ac.kr

인류의 역사에서 도서관은 변화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슬람제국의 도서관은 중세 암흑기에서 사라진 그리스 문화를 유럽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였고, 유럽에 대학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였다. 또한 근대의 영국국가도서관이나 프랑스국가도서관은 국력의 상징으로 지식문화의 선도 기능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공공도서관이 시민사회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도 시대의 중요한 역할이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6월 말, 미국 대학도서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최근 국내의 대학도서관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의 대학도서관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였다. 사전에 해당 도서관에 연락하여 방문 약속을 하였으며, 주로 참고봉사담당 사서와 연결이 되었다. 방문한 여러 대학도서관의 공간과 서비스는 대학의 호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다. 필자의 관점에서 대학에 대한 선입감이 있지만, 도서관을 방문한 후, 해당 대학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학부학생에 대한 서비스로 가장 평범하면서도 인상적인 곳은 프린스턴 대학도서관이었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린스턴대학교는 2013년 'US News & World Report' 주관의 미국 대학 순위에서 하버드대학교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한 명문 사립대학교이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역사가 오래된 사립대학교는 그 출발의 중심은 도서관이다.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내려와 대학 본부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 보였는데, 그 결과는 지속적인 장서확충을 포함한 도서관에 대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었다. 프린스턴대학교는 미국에서 4번째로 오래된 대학교로, 11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Firestone Library'이며, 현재 건물 리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프린스턴 대학도서관도 도서관 장서 보존 차원에서 도서관 출입은 대학 구성원 중심으로 허락되었지만, 방문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증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었다. 안내를 담당 한 사서는 Gorge 박사로 '시니어 참고봉사 사서'로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 참고봉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

도서관의 연구조사에 관한 저서가 있으며, 인근의 러커스 뉴저지주립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그녀는 프린스턴 대학도서관의 학부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는 신입생 시절부터 졸업할 때까지 연구논문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라고 자랑하였다. 프린스턴 대학도서관에서는 대학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서비스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가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프린스턴대학교에서 학부학생들은 필수로 졸업 논문을 제출해야 졸업 요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4학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한다. 학부학생들의 논문 작성은 우리나라도 많이 채택했던 졸업 요건이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논문 작성 효과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과도 2년 전에 졸업논문 제출대신 졸업시험으로 바뀌었고, 올해 신입생부터는 졸업시험도 없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프린스턴대학교에서는 졸업논문 작성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 교육 시스템에서 대학도서관은 필수적인 기관이 된다. 학생들에게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 찾기부터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까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교육은 외부 강사가 진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서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왜 미국 최고의 대학인 프린스턴대학교에서는 대학도서관 이용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는 미국 주요 대학의 뿌리가 대학도서관이며, 대학 교육은 대학도서관 장서를 밑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프린스턴 대학도서관은 700만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서를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안내를 담당한 George 박사가 은근히 자랑하는 것으로 현재 프린스턴 대학도서관 장서구입비가 미국에서 제일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장서구입비를 줄이고 있지만, 프린스턴대학교만은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 컨퍼런스에 가면 프린스턴 대학도서관 사서가 출판사 직원으로 부터 가장 인기가 많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이 해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장서가 프린스턴 대학교를 미국의 1위 대학으로 만든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일부 대학은 대학도서관을 단순히 시험기간 동안 시험 공부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대학도서관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도서관 소장 장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지식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다.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이 해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서비스가 우리나라 대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㉞